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사이버범죄 노출 막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생성형 AI 시대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 위한 콘텐츠 개발
디지털 공간 폭력화 방지 위한 예방교육도 강화... 총 467개 학교서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사이버범죄의 노출을 막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웹툰 형식의 '똑디와 함께하는 디지털 예절의 모든 것', '똑디와 함께하는 생성형 AI 인공지능윤리의 모든 것' 등 생성형 AI 시대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또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실태조사 등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디지털 미디어 관련 청소년 상담·치료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거짓 정보에 대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진행된다. 일상의 수업에서 슬기로운 미디어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인권, 팩트 체크 등을 재구성한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한다.

이미 8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 데 이어, 실천에 주안점을 둔 구체적인 학습 자료도 개발중이다.

디지털 공간의 폭력화를 막기 위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총 467개의 학교폭력예방 지원·중점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연계해 사이버 성범죄·해

킹·피싱 등 디지털 범죄를 막기 위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21일을 '사이버폭력에 방교육 주간'으로 지정, '늘푸름' 등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안내 모든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그 심각성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지키는 건전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전주 관광호텔 꽃심 세미나실에서 대학·교육청 간 고교학점제 운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8개 대학과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대학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 실무협약식'도 가졌다.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 참여 8개 대학과 실무협약

전북자치도교육청, 군산대 등...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전주 관광호텔 꽃심 세미나실에서 대학·교육청 간 고교학점제 운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8개 대학과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대학 여름방학 공동교육과정 실무협약식'도 가졌다.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

주대, 조선대, 충남대, 호남대 등 8개 대학 입학처장 및 입학사정관, 고교교육과정 담당자가 참석해 다양한 강좌 개설을 약속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것과 달리,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 수강하는 방식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대

학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고교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첨단 연구개발 장비 도입·운영 사업 선정

전북대, 총 78억 규모... 반도체 분야 첨단 연구시설 구축, 반도체 인프라 시너지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첨단 연구개발(R&D) 장비 도입·운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총 734억원을 투입, 대학의 첨단 연구개발(R&D) 장비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는 '기반(인프라) 고도화' 사업으로, 장비 구축비 20~50억원을 지원하는 중형 과제 5개, 50~7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과제 5개를 선정했다.

이에 전북대는 지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전기·전자 분야 대형 과제에 선정, 54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반도체 분야 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학교 반도체 공정센터.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또한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개선, 전담운영인력(테크니션) 육성·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5년간 29억7,5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 전북대에는 반도체과학기술학과와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공학, 물리, 유전인쇄 등 다수의 반도체 유관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반도체에 대해 파생될 여러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가 공모한 387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 분야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반도체소부장)'에 컨소

시엄 대학 등 주요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반도체 융합 전공'을 신설하고,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반도체 인재양성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선정된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새 만큼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대한 비전을 제시, 이에 발맞춰 교육과정에서도 2차전지와 K-방위산업 분야에 급증할 인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배터리융합전공과

방위산업융합전공 등을 만들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 파생되어 수요가 기대되는 첨단 산업분야 인재양성 선점에 적극 나섰다.

연구책임자인 최철중 반도체물성연구소 소장과 핵심연구자인 허근 반도체공공연구센터 센터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핵심 연구성과 창출과 전문인재 양성, 기업 지원 등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법지역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도체공공연구소 유치에 나선 만큼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조치현·류남일 직원 정년 퇴임식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4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류남일(정보통신센터)·조치현(관리팀) 직원에 대한 정년 퇴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류남일 직원은 1993년 우석대 전자계산소 근무를 시작으로 정보화추진팀과 정보통신센터 등에서 대학 정보시스템 개발과 보안,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에는 정보보호분야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조치현 직원은 1997년부터 우석수원원과 평가감사팀, 관리팀 등에서 26년간 근무하며 시설물 관리와 행정업무 등 많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2018년 우수직원에 이름을 올려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박노준 총장은 "오랜 세월 대학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밀거품 삼아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대학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고객지원실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원업무 담당자 사기 진작 도모

서거석 교육감,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고객지원실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객지원실과 전북교육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 교육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내었다.

서 교육감은 "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창업 역량강화 교육과정 기반 조성 '손 맞잡다'

국립군산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정동원)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하상용)는 지난 21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역량강화 교육과정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군산대의 정동원 단장, 차상돈 산중교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하상용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인증과정 개발과 소프트웨어, 인재개발, 산업인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통한 대내·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동원 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창조



경제혁신센터와 함께 SW분야 및 데이터 분야와 관련,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의 AI·SW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창업 생태계 선순환 사세를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하상용 센터장은 "최근 AI를 중심으

로 융복합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국립군산대학교의 협약이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신생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는 학생과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글로벌대학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학사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SW인재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컴퓨터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모집단으로 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전문 프레젠테이션 양성 교육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재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프레젠테이션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공별 커리어로드맵을 중심으로 취업 계획 도출하고 발표하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PT 기획 및 제작 △스피치 역량 강화 △논리 구성 전략 등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습득했다. 더불어 자신만의 차별화 된 PT를 제작·발표하며 전문 프레젠테이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신속경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 커리어로드맵 설계 능력과 효과적인 전달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책임·존중·갈등관리 관련 마음수련

인성 '다지고, 넓히며, 나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찾아가는 명상수업' 시범 운영

전주·익산·군산지역 20개교 106개 학급서... 11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찾아가는 명상수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과 긍정적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명상수업은 올해 전주·익산·군산 등 시범 20개교, 106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이는 전북 인성교육 핵심 덕목인 책임, 존중, 갈등 관리와 관련된 마음수련 내용으로 '인성다지기', '인성넓히

기', '인성나누기'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인성다지기 단계에서는 마음빼기 명상으로 내 마음의 형성 원리를 알고 자기정체성과 책임을 배운다. '인성넓히기'와 '인성나누기'는 긍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사는 세상의 나눔과 감사의 마음을 깨닫는 단계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성교육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명상수업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